

20세기의 끝에서 되돌아본 사상과 인물

한 세기 풍미한 대표적 사상 점검 ... 새 시대 전망 찾기 위한 모색

세기말에 이르러 지난 세기를 돌아보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사상서들에 독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변혁과 혁명의 시대였던 20세기의 마감에 몇 년 앞두고 한 세기를 풍미했던 대표적 인물과 그들의 사상을 점검하는 책들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출간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획기적 성과 망라

20세기는 인간의 사유와 의지에 대한 천착을 깊게 했던 시대이다. 철학과 사상이 집대성되고 과학적 탐구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20세기 사상이 망라되어 있는 이 책들은 《103인의 현대사상》 《20세기 사람들》 《잃어버린 미래를 찾아서》 《현대사상의 파노라마 101》 《현대사상가 50》 《20세기를 만든 사람들》 《철학의 뒤안길》 등이다. 사상 입문서와 참고문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현대사상의 파노라마 101》(새길)은 금세기의 사상이 101인의 사상과 삶을 간략하게 다루어 이 시대의 인식론적 지도를 펼쳐 보인다. 저자 이마무라 히도시 교수는 60년대 이후의 인물을 주요대상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68년 이후 세계적으로 펼쳐진 저항과 반란운동, 89년의 동유럽혁명과 91년 소련 및 유고의 붕괴가 모두 최근 30년 동안 발생했으며 페미니즘, 반핵운동, 에콜리지 운동이 일어난 것도 최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마르크스·니체·프로이트에 이어, 현상학·구조주의·비판이론을 개괄하고 60, 70년대 저항운동의 이론적 준거들을 인물별로 정리했다. 그람시·라캉·푸코·데리다·들뢰즈 분석을 통해 마르크스 다시 읽기도 시도하고 있으며, 레닌·모택동·융·칸딘스키·케인즈도 간략하게 정리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출간한 민음사의 《103인의 현대사상》과 현실문화연구의 《현대사상가 50》은 명실상부하게 20세기 사상서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민음사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발간한 《103인의 현대사상》은 20세기 지성사를 만들어온 사상가들의 핵심을 함축하여 소개한 책이다. 김우창·유종호·도정일·김상환·김성기·이정우·임경순 교수가 엮고 신진학자들이 집필한 이 책에 선정된 103인은 20세기 사상

지난 한 세기를 돌아보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사상서들에 독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학과 사상이 집대성되고 과학적 탐구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20세기를 정리한 이 책들은 새 시대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이기도 하다.

의 단초를 연 프리드리히 니체·칼 마르크스·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비롯하여 이를 계승, 심화·확장한 페르디낭 드 소쉬르·마르틴 하이데거·에드문트 후설,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 현상학자들과 구조주의자 및 비판이론가들로 이어진다.

이밖에 거대통합이론이 붕괴하면서 미셸 푸코·질 들뢰즈·롤랑 바르트·장프랑수아 리오타르 등 프랑스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펼쳐진, 개별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새로운 사상의 개화도 강조한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자연과학의 발전이다. 쿠르트 괴델·자크 모노·에드워드 윌슨·일리아 프리고진 등 자연과학자 12명의 사유를 다루었다. 동양권에서는 4명의 한국인(김지하·백남준·김재권·정화열)을 포함, 7명이 선정됐다.

철학자의 계보망 추적

《현대사상가 50》(현실문화연구)는 기호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제자인 존 레흐트의 저작이다. 구조주의·포스트구조주의·기호학·페미니즘·포스트모더니즘 등 사상의 흐름과 주요 이론가 50인을 인물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사상이마다 원저는 물론 국내 번역본까지 거의 망라해 수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르크시즘 맥락의 알튀세르에서 하버마스까지, 포스트구조주의 맥락의 푸코에서 데리다까지, 정신분석학 맥락의 프로이트에서 라캉까지, 또 기호학 맥락의 소쉬르에서 에코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의 서로 얽힌 계보망을 추적한다. 또 알랭 투렌·테오도르 아도르노·한나 아

렌트 등을 포스트 마르크시스트로 분류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마르그리트 뒤라스·프란츠 카프카 등의 생애와 사상을 함축적으로 정리했다. 이밖에도 뤼스 이리가라이·캐롤 페이트먼·미셸 르 뒤프 등 남성중심의 사회에 반기를 든 페미니스트들의 학문세계도 소개했다.

95년에 출간된 《20세기를 만든 사람들》(푸른숲)은 시인 김정환씨가 20세기 세계사를 이끌어온 100인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한 역사인물 비평서이다. 이 책은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친 예술·사상·경제·과학 등 각 분야의 인물을 그 영향력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 서술해 간다. 1위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지도자인 레닌, 2위는 현대물리학의 새 지평을 연 알버트 아인슈타인, 3위는 20세기 예술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온 작곡가 쇤베르크이다. 선정된 100인 중에는 마릴린 문로와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대중스타도 포함되어 다른 책보다 인물이 다양하고 대중적이다.

그밖에도 한겨레신문사에서 출간한 《20세기 사람들》과 《잃어버린 미래를 찾아서》(푸른나무) 《철학의 뒤안길》(서광사) 등이 20세기의 사상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인생과 사상을 정리한 책들이다. 《20세기 사람들》은 기왕에 언론사에서 펴낸 사상·인물 일람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사상의 맥락을 짚었으며, 《잃어버린 미래를 찾아서》는 ‘거꾸로 보는 사상사’라는 부제로 세계사와 함께 사상 체계를 더듬어가는 책. 《철학의 뒤안길》은 사상가들의 사상과 배경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책들은 20세기 인물 사상의 일목요연한 지형도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편집자의 취사선택에 따라서 누락되는 인물들이 있을 수 있어 한권의 책이 모든 인물과 사상을 망라한다고 볼수는 없다는 단점도 있다. 또 대부분 입문수준에서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있는 수준을 기대할 수 없고, 무엇보다 비서구 사상의 흐름까지 포괄하지는 못한 점이 아쉽다.

일목요연한 지형도 제시

20세기 사상을 정리하는 이들 책은 다가오는 21세기와 새로운 밀레니엄(1천년)을 준비하는 기획이라는 점에서 새 시대의 전망을 찾기 위한 모색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래를 전망한다는 의미에서는 대안이나 전망이 부족하다는 평도 있다.

엘빈 토플러나 빌 게이츠가 내다보는 과학기술적 측면의 장미빛 미래 전망은 인문분야의 회의적인 전망과는 괴리감이 있다. 물론 제레미 리프킨이나 국내 녹색평론가들처럼 장미빛 환상에 비판적인 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합한 구조나 환경친화적 생활을 강조하는 사상가들도 있다.

민음사의 장은수씨는 “철학의 출발점은 낙관론을 반성하는 사유에서 비롯된다. 어느 이론을 전격 수용하느냐는 입장차이에 달렸지만 21세기가 20세기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에서 여전히 세기말의 이론과 사상들은 유효하다”고 말한다. 이 세기를 반성하고 정리하는 사상서 출판은 다양한 모습으로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 마정미 기자

